

# 광주·전남 실업률 3%대 ... 가파른 상승세

### 2월 각각 3.7, 3.8% 기록 경기침체로 고용환경 악화 호남통계청 '지역 고용동향'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이 3%대로 치솟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8일 내놓은 '2015년 2월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에 이어 전남 역시 실업률이 3.8%를 기록, 3%대를 돌파했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2.4%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3.3%, 2월 3.7%로 3개월째 상승했다. 지역 실업률 상승에 따른 고용환경 악화는 고용률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음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영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고용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 지역 2월 고용률은 57.3%로 전년 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해 7월 59.5%를 기록한 이후 7개월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자는 7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000명(0.9%) 증가한 수준이었다.

산업별로 도소매·음식숙박업(18만1000명, 11.1%), 전기·운수·통신·금융업(7만8000명, 1.0%) 등은 각각 증가했으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7만2000명, -1.2%), 광공업(11만명, -0.4%), 건설업(6만8000명, -5.8%), 농림어업(1만5000명, -23.4%)은 감소했다. 전남 지역 고용률은 59.0%로 전년 동월대비 0.5%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취업자는 8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5000명(1.7%) 증가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4만3000명, 1.0%), 도소매·음식숙박업(17

만6000명, 0.2%), 광공업(9만9000명, 2.1%), 건설업(7만5000명, 12.4%)은 증가했으며, 농림어업(20만9000명, -2.8%), 전기·운수·통신·금융업(8만2000명, -8.1%)은 각각 감소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 등의 폐업증가가 실업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일부 자영업체는 새 사람을 채용하는 대신, 가족 중심으로 운영을 전환하면서 취업 기회마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28.45 (-1.46)
- ▼ 금리 (국고채 3년) 1.86% (-0.01)
- ▼ 코스닥 628.99 (-7.06)
- ▲ 환율 (USD) 1129.90원 (+1.00)

## 광주상의 부회장단, 김상열 회장 추대 입장 표명

광주상공회의소 제21대 부회장단이 차기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회장단은 또 "김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계가 화합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며 "부회장단의 합의추대 요청을 받아들여 상의 회장 불출마라는 큰 결단에 내려준 박형석 회장에게도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7.51%... 전국 상위권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7%대로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1%대 시대를 맞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분위기 속에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 수익률도 연 6%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1198개 단지, 27만5205실)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말 현재 1억8429만2900원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은 연 6.02%를 기록했다. 임대수익률은 각종 세금, 거래 및 보유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익률로, 지난해 2월 말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의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7.51%로 충남(7.80%), 충북(7.60%), 대전(7.52%)에 이어 전국 평균보다 수익률이 높았다. 광주의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1억745만2900원으로 인천(1억703만2900원), 대구(1억1367만2900원)에 비해서였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 인터넷 쇼핑·뱅킹 때 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사라진다. 또 옐로페이,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결제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성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판매처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 /연합뉴스



한전, 전기 전공대학생 '전력기술 캠프' 18일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HVDC 전력기술 캠프'에서 광주·전남지역 3개 대학 전기 전공 대학생들이 HVDC(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송전하는 기술) 계통연계 설명을 듣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전은 지역대학과의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 제공>

## 광주 토종기업 로켓전기 상장 폐지

### 유가증권시장 상장 27년만에 환란 후 재무구조 급격 악화

68년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지역 토종기업 로켓전기가 198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27년 만에 상장폐지됐다. 1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는 로켓전기가 최근 회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 폐지돼, 결국 주식시장에서 퇴출됐다고 밝혔다. 로켓전기는 1946년 광주 동구 호남동에 설립된 건전지 전문업체로, 호남전기의 후신이다. 한 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건전지 명가'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국내 영업권과 상표권을 외국계기업에 넘기는 등 자구노력을 펴왔으나 불황의 쓰나미를 넘지 못했다. 국내 점유율도 1998년 37%에서 2008년 14.4%까지 폭 떨어졌고 사활을 걸고 추진한 신규사업인 1, 2차 전자사업도 중국업체와 국내 대기업에 밀려 날개를 펴지 못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생산장지 중 일부에 대한 매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7월에는 서울 강남 소재 200억 원대 사옥을 경매시장에 내놓는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법원에 제시한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주유소 경유값 37일만에 상승세 꺾여

### 휘발유값은 소폭 올라

지난 2월9일부터 37일 연속 상승한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값이 18일 하락세로 반전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의 경유 평균값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1리터 1333.2원으로 전날보다 0.29원 하락했다. 오피넷의 주유소 기름값은 실시간으로 집계돼 하루에도 수차례 변할 수 있지만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값이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매주 화요일 발표하는 휘발유 공급 기준가를 7주 연속 인상하다 17일 1리터 당 8원 인하했고, 경유값 역시 15원 내렸다. /연합뉴스

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값이 1월 중순 저점을 찍고 2월부터 오르면서 따라 움직였다. 휘발유 평균값은 2월5일 1리터 1409.7원으로 저점을 찍고, 다음날부터 매일 상승해 이날 1516.5원으로 총 106원이 올랐다. 경유는 2월5일 1254.2원으로 저점을 찍고 2월9일부터 매일 상승해 3월17일 1333.5원이 됐다. 총 79원 올랐다 이날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꺾인 것은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값이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매주 화요일 발표하는 휘발유 공급 기준가를 7주 연속 인상하다 17일 1리터 당 8원 인하했고, 경유값 역시 15원 내렸다. /연합뉴스

## 대기업 남녀 직원 연봉 격차 2630만원

### 은행업종은 4370만원 CEO스코어 조사

대기업의 남녀 직원간 연봉 격차가 2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종은 그 차이가 4400만원에 달했다. 18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남녀 직원 간 연봉을 분리 공시한 29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남성직원의 평균 연봉은 7250만원, 여성은 4620만원으로 추산됐다. 남녀 격차는 2630만원으로 남직원이 매달 220만원의 임금을 더 받는 셈이다. 이는 남직원의 근속연수가 긴데다 여직원들이 비교적 낮은 직급에 분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남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2.6년으로 여직원(7.5년)보다 1.7배 길었다. 업종별 남녀 연봉 격차가 가

장 큰 곳은 은행이었다. 조사대상 12개 은행의 남직원 평균 연봉은 9940만원이었고 여직원은 5570만원으로, 남녀 격차가 4370만원에 달했다. 남직원이 월 360만원을 더 받는 것이다. 삼성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 등 16개 회사가 포함된 보험업종도 남녀 연봉 격차가 3980만원에 달했고, 여신금융업(9개사)은 3690만원, 증권업(17개사)은 3470만원이었다. 특히 증권과 보험 업종은 남녀 근속연수 차이가 비슷함에도 연봉 격차가 3000만원 넘게 났다. 증권은 남녀 근속연수 차이가 불과 0.2년으로 500대 기업 21개 업종 중 가장 짧았고, 보험도 2.4년으로 짧은 편에 속했다. 금융 업종 다음으로는 석유화학업(34개사) 2920만원, 에너지업(16개사) 2850만원, 건설업(20개사) 2800만원 순으로 평균치보다 남녀 연봉 격차가 심했다. /연합뉴스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홍 김서연' 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주)올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